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제주도 보전·진흥계획 마련
단체 종목 보유자도 전승비
전수관 4곳에 교육사 근무
미입주종목 전승시설 지원
마을 공공시설과 연계 추진

제주도 무형문화재 단체 종목을 포함 전승지원금이 확대되고 일부 전수교육관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된다. 제주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처음 수립한 5개년(2020~2024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무형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은 22개다. 3월 현재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덕수리불미공예, 고소리술, 제주큰굿 등 3개다. 다만 제주큰굿은 서순실 전수교육조교를 보유자로 인정예고한 상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장기부재 종목 해소에 힘썼고 제주도 영장소리, 구덕장 등 신규종목을 발굴했다. 전승지원금과 재료구입비 지원도 늘렸다.

하지만 전승 기반 강화나 지역민의 무형문화재 인지도 제고는 여전한 과제다. 민간 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이번 무형문화재 보전·진흥계획을 통해 보유자를 둔 단체 종목에 별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단체 종목을 포함 전승지원금을 받는 보유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전승자와 지자체간 정기적 소통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승자가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도 이루어진다. 투입 예산은 총 4850만원으로 공모 심의를 거쳐 종목당 500만원 한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제5호 송당리마을제의식 재현도 지속 운영된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포함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 종목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공한다. 특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에서는 오는 8월 '고 안사인 심방 추모 30주기 칠머리당영등굿'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중인 전수교육관 4곳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둔다. 전수관 상시 개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제주불교의식 전수교육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대상이다. 빠르면 3월부터 시설 당 1명씩 근무한다.

전수교육관 미입주종목에 대해선 전승 시설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전수관이 일부에 불과하고 제주시 도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마을 내 공공시설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세계자연유산 해설활동 중단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탐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9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해설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다.

자연유산 해설이 중단되는 곳은 거문오름(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4개소다. 해설사 활동은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중지되지만 개별 탐방은 가능하다. 단, 거문오름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탐방할 수 있다.

청소년 도서 온라인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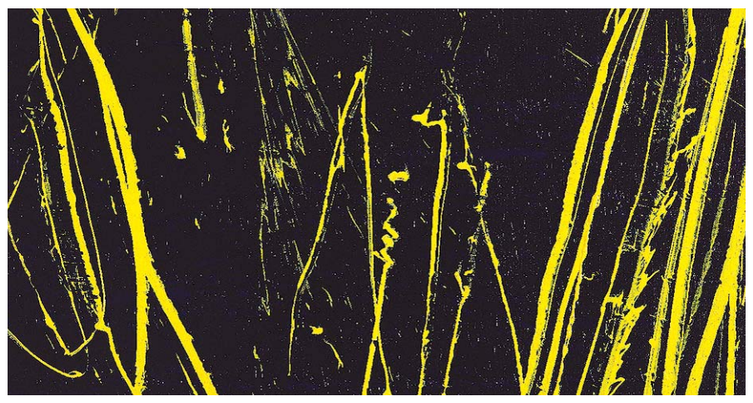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가 소장 도서에 대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구축했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센터-정보자료실 도서검색'에 접속해 도서명과 저자명, 발행처 등으로 필요한 책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보자료실에는 청소년 관련 논문을 비롯한 전문서적, 센터 발간자료, 일반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18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강옥련 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센터를 방문해 일일이 도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검색이 가능해졌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법고창신… 캔버스에 아크릴로 '보는 서예'

제주 델문도 뮤지엄 기획전
손동준 작가 초대 3월 한달
"신서예 위한 창의적 실험"
추상회화처럼 춤추는 문자


손동준의 '선율'.

붓글씨로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가 있다. '신서예(新書藝)'를 위한 창의적 실험으로 새로운 추상회화를 펼쳐온 손동준 작가다.

손동준 작가는 원광대 미술대학 서예학과, 경기대 전통예술대학원 서화예술학과,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중국수도사범대학 서법문화연구소 서법이론 박사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예를 공부했다. 한국 서단을 이끌었던 김충현(1921~2006) 선생을 기리는 일중선생기념사업회의 일중서예우수작가상(2016) 수상을 비롯 제1회 서예문화대전 대상(2004), 제17회 월간서예대전 대상(2000), 제1회 서울서예대전 대상(2000), 제6회 KBS 전국휘호대회 금상(1991) 등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한국 현대 서예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3월 한달 동안 제주 델문도 뮤지엄(제주시 연삼로 316) 기획 초대전을 펼치고 있다. 약 15점에 이르는 '선율(The Rhythm of Lines)' 연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중국정부 서법장학생 박사 1호'인 손 작가는 중국 유학에 나설 무렵 노트북 하나로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에 상투쓰고 선비가 했던 일을 재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고민이 들었다고 했다. 문자로 표현하는 서예 작업에 대한 한계도 느꼈다.

그는 서예정신의 기본은 수양이라고 여겼고 그때그때의 기분과 생각 등을 초서를 응용한 그만의 글씨체를 이용해 필선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공자나 맹자가 남긴 좋은 글귀에 담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구상으로 안될 것 같아서 추상작업을 하게 됐다. 기본 재료는 양화에 사용되는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이었고 붓만이 아니라 전각의 새김칼, 제빵용 짤주머니를 글씨 쓰는 도구로 잡았다. 손 작가의 작업에는 그동안 그가 배웠던 모든 글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문자들은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 된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문의 064)755-0006. 진선희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제주 지역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가 취소·연기되거나 일정 변경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주(3월 9~15일) 무대와 미술'은 쉽니다.

1년에 걸쳐 한라일보 웹소설 '갈바람 광시곡' 연재를 마친 강준 소설가. '중국 3부작' 마지막이 될 장편을 구상하고 있다.

"웹소설 시도 의미… '중국 3부작' 계획"

제주 강준 소설가 1년 걸쳐
'갈바람 광시곡' 50회 연재
순수소설 웹게재 관심 모아
초고 바탕 시사 이슈 더해
차기작 조선족 이야기 구상

그는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으로 향할 채비를 하는 중이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에 걸쳐 한라일보에 웹소설 '갈바람 광시곡' 연재를 마친 뒤 다시 새로운 창작을 위해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 거라고 했다. 근래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 강준(본명 강용준) 작가다.

"웹소설 하면 SF장르를 떠올리는데 순수소설이어서 관심이 더 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까지 연락이 오고 주변 반응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제주에서 처음 웹소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둡니다."

권용찬, 왕금산, 장종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갈바람 광시곡'은 제주를 배경으로 세 사내 집안의 삼대에 걸친 인연과 우정,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중국 자본의 실체를 좇는 과정을 기둥으로 세운 소설이다. 고재만 화백은 매번 삽화를 그려 넣어 웹으로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볼거리를 줬다.

강 작가는 초고를 작성한 상태에서 연재를 시작해 문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소설을 공개했다. 이 여정에서 제주사회 이슈 등 현장 취재 결과가 반영됐다. 음식점에 중국인 취업이 늘면서 벌어지는 일이나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마사지방 운영 모습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사례가 그려졌다. 앞날이 유망한 조선족 축구 선수가 한족에게 멸시를 받았던 일화는 강 작가가 연변 여행 중에 직접 들었던 말이다. 중국 '꽌시'의 폐해만이 아니라 제주 '괸당' 문화가 공동체를 강화하는 반면에 배타성을 낳았다는 점도 소설을 연재하면서 더해졌다.

'갈바람 광시곡'은 회 당 4500~5000자 분량으로 50회를 이어갔다. 그 시기 열정을 쏟으며 쓴 작품이지만 강 작가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했다. 제주 문화가 품은 아름다움이나 제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내년쯤 단행본으로 묶을 때 보강할 계획이다.

강 작가는 2012년 교직에서 명예퇴임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1987년 등단한 희곡보다는 뒤늦게 데뷔한 소설로 더 왕성한 작업을 펼치며 장편소설만 해도 '붓다, 유혹하다', '사우다드' 두 권을 냈다. 2018년엔 한국소설작가상을 받았다.

계간지에 희곡을 발표하는 등 문단과 처음 인연을 맺은 장르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소설에 대한 그의 열망은 크다. 강 작가는 '사우다드', '갈바람 광시곡'에 이어 '중국 3부작'으로 여기는 장편 구상 계획을 전했다.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연변 조선족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만큼 소설로 쓸거리가 많은 지역이 없다"면서 "젊은 작가들이 특정 소재에 매몰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제주 문학의 영역을 확장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진선희기자